

☆ 서정문학만 알면 ...

서정문학의 뜻만 알면

늘 우리를 괴롭혔던 고전시가 공부와

현대시 공부가 바로 해결된다....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찾고 화자는 그것에 대해

자기의 느낌을 적은 글....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란다....

오늘도 공부방법을 바꾸지 않았니 ?

그렇게 한 주 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가짜 화면에 빠져....

또 한 달 지나가고.... 그럴수록 너 겁나잖아?... 그렇지...!!

자신에게 솔직해봐....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아지겠니 ?

바꿀거라면 작년에 이미 바꾸고도 남지 않았을까 ?

남다른 내일을 꿈꾸면서 남다른 오늘을 보내지 않는데....

왜 너는 교재, 학원, 집, 선생님, 독서실 그런 세상밖만 할거니 ?

안녕하세요. [김현종 T입니다.]

오늘은 [③ 번째] 시 문학 분석으로 또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③번째 칼럼을 읽기 전에 ①, ②번 칼럼을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보고 오셔야 효과가 큼니다. !!

지난 시간을 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수업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흥미와 이해를 위해 다소 과장과 비약이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자, 지난 시간에 2015 기출 A형의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분석해 봤
다... !! 결국 결론은 서정문학으로 접근하고 서정문학으로 출제하
며 서정문학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지 ? 그래
서 이번에는 확인 사살도 할 겸...아직도 어리버리 이렇게 하는 것
이 맞나 ? 하면서 믿지 못하고 기존 공부방법을 고집하는 친구들에
게 마지막으로 2015 기출 B형을 분석해 보이겠다.....

= 네 선생님 꼭 보고 싶어요. 정말로 대상만 찾고, 정서와 태도만 찾아도 문
제가 풀리는지...정말로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정리 없이도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문제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고 또 아
직도 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
다. 얼른 해 주세요....

= 좋아.... 크게 따라한다 !!!! 시를 만나면 ? 뭘 찾는다 ?.....

- = 네, 선생님 !! 바로 시적화자가 바라다 보는 대상을 찾습니다.
- = 그것만으로 되겠나 ???
- = 아닙니다. 각 줄마다 숨겨진 대상에 대한 정서와 시적화자의 태도를 찾아야 합니다.
- = 오케이.....바로 그거면 무조건 통과야..... 이제 가보자고....!!
- = 저...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
- = 뭔데 ?
- = 지난번에 질문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애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쓸데 없는 거 필기하고 암기했던 자신들을 반성하며 저희들 앞에서 그 두꺼운 분석노트를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대상을 꼭 찾겠다고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 = 음..... 좋아.....기출은 준비했다냐 ?....
- = 네...선생님 기출 문제 ...아주 코팅까지 해왔습니다.
 ^&^, ^0^, ^^;;..... ㄹㅇㄹㅇㄹㅇㄹㅇㄹㅇㄹㅇㄹㅇ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놉똥던고
 ㉠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천하 엇찌흐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흘가

- = 자 애들아.... 역시 쳐다보면 골치 아프고 괴롭겠지 ?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분석될 거 같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보자마자 바로 대상과 정서 찾아지는 사람 있니 ?.....

= 선생님, 물론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라서 문과든 이과든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은 이런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들이 원문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으로 관건인거 같습니다....

= 좋은 지적이다.... AB형으로 나누기 전 고전시가 기출을 보면 근 20년간 현대어로 국역되어 출제되었다.... 그것은 주어진 지문독해 시간(2:30~3:05초)에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였고 현재 A형이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 (독해 작품 수를 줄여 독해 시간을 다소 짧게 함)... 하지만 B형은 다소 어려운 수능이라고 해서 고전 원문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조선 전후기 가사문학 8-14개 정도의 작품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결국 현대어 국역출제가 된다는 것이란다. 즉 인문계열이라면 (문학 II) 시간에 반드시 원문으로 배워야 하는 필독 작품으로 8-14개 정도의 작품이 있다는 것이지....

= 선생님, 저희는 문과인데 그런 문학 II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독 작품이라는 말도 처음 듣습니다.

= 그건 학교 선생님에게 여쭙보면 된다.... 왜 없었고, 처음인지...

= 그러면 선생님... 저 필독 가사 작품 정도만 해석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뭘..?!! 어떻게 하다니 ?.....바로 대상 찾고 ...정서, 태도 찾아야지...

=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8-14개 정도의 고전 가사작품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기존 저희가 시를 읽는 방법대로 읽어내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배경지식 없이 해석만 된다면.... 된다는 거죠 ?

= 당연하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절대로 다른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저 대상을 찾으라고...그게 서정이니까... 교

수님들도 무조건 서정으로 출제해야 뒤탈도 없고...가장 정확하게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것이기에 수능 시스템 안에서 출제하신다고...그게 서정문학이야.....이런 거 이제.....더 이상 묻지마라...

= 그러면 그 원문으로 나온다는 작품들은 무엇입니까 ?

= 지난번 내가 오르비에 자료를 올렸다... 고전 원문으로 출제되는 작품들....해석만 공부하세요....라고말이다... 알았지 ?

= 우선 상춘곡, 면앙정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규원가, 선상탄, 누항사, 고공가, 성산별곡, 고공답주인가, 우부가, 용부가, 연행가, 일동장유가 등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원문으로 나오되 100여년 전 작품들이라 어느 정도 해석도 되는 작품이다... 그러니 앞에 작품들은 충분히 들어봤을 것이고, 해석본을 보면서 공부하면 그게 다이다... 더 없다...걱정하지 마라....

= 선생님 수능 A형에서는 박인노의 상사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 그 작품은 A형이고 현대어로 어느 정도 국역되어서 나오기도 할뿐더러 그 자리에서 분석될 수 있을 만큼많은 정보를 제공한단다....그러니 서정문학만 알면 되는거야...대신 문과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지..... 그나 저나 이것도 내년이면 모두 없어진다....결국 현대어로 국역되어서 출제되든지...아니면 필독 작품은 계속 원문으로 출제되든지..... 선생님 볼 때는 현대어로 국역되어 출제될 거 같다.... 우리 앞 시간에 A형 풀어봤잖니...그렇게 그 자리에서 풀린다고 보면 돼... 다시 보고 오렴...

= 알겠습니다. 선생님...그러면 결국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별다른 배경지식 없어도 무엇이든 풀 수 있다는 것이죠....

= 그래 이제부터 보여줄게..... 필수 작품 8-14개정도 해석만 된다면

고전시가가 아무리 원문으로 나온다해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저 정도만 해주면 된단다...플리즈...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놉뎡던고

㉠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어찌하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 **금강산에 최고봉인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 시적화자는 지금 최고봉 비로봉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저 높은 곳을 올라간 사람이 누구
까 궁금할 정도로 그 기세에 놀란 모습이다. 즉 대상은 금강산 최고봉이고 웃겨? 놀라
워?... 당연히 놀라워 !!.... 정서는 노출되었다... 사실 게임은 끝난거 같기는 한데... 조금
더 가보자....

=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음을 알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했으니)동산과 태산에
어는 것이 비로봉 보다 높던가.**

=> 물론 해석이 안되면 이 것도 다 헛짓이다... 해석이 된다는 가정아래...대상을 찾는 것이다.
최고봉에 대한 자기 느낌은 너무 놀랍고 좋은 것이다.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공자까지
불러왔다. 공자출신이 노나라인데 지네 나라에서도 높은 태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고 세
상 천하가 너무 작다고 한탄했다...=== 이거는 시적화자의 느낌이 아니라 공자의 느낌이
니까 지나가라... 신경도 쓰지마라.... 그런데 그런 공자의 태산과 지금 화자의 비로봉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일 정도로 시적화자는 지금 감정이 어떨다 ?.... 최고라는 공자와
한판 붙고 싶을 정도로 금강산이 좋다 ?....안좋다 ?.... 당근 좋지...!!!!

=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 당시 노나라가 좁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는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 그래도 이 넓디 넓은 천하를 어찌 공자는 작다고 말했는가 ?..... 와 그 사람 대단하다....
=> 여기서 순간 대상은 공자의 정신적 경지이다. 세상을 작다고 말하는 그 공자의 정신적 경지....정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해도대상인 공자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알지 ?

= 아 공자와 같은 이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공자의 호연지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네.)

=> 벌써 나온다... 공자의 정신적 경지장난 아니다...라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존경...!!

=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괴이할까?

=> 최고봉인 비로봉도 못 올라가는데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어찌 자기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 하면서 산도 내려가야 할 거 같고..... 공자와 자기는 견줄 수 없다는 감탄을 드러냄....

===== 여기까지 해석을 봤을 때 대상은 공자보다는 금강산 최고봉입니다. 금강산 최고봉을 보고 연신 감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정서를 위해서 공자를 잠깐 불러온 것 뿐입니다. 간단하게 끝냅시다. 여러분도 높은 산 경치 보면 어때요 ?..... 와....와 ...하겠죠 ? 바로 그 정서입니다. =====

원통골 7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어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원통골의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 애들아... 시적화자가 움직였으니 대상은 바뀌겠지 ? 아마도 사자봉우리 같다.

=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화룡소가 되었구나.

=> 계속 사자봉우리에 있는 화룡소라는 연못을 보고 있다... 아직 정서는 없다... 보기만 한다.

=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구비구비 서려 있는 것 같이

=> 그 연못에 대해 느낌이 나오기 시작한다. 뭔가 용이 나올 거 같다는 표현...

= 밤낮으로 물을 흘러 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 그 용은 계속 물을 흘러내어서 바다로 보낸단다.... 아직은 정서표출이 없다....

= (저용은) 바람과 구름은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 뭐... 이 정도 해석되잖니 ? 일단은 용이 좋은 때를 얻어서 흡족한 비를 내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 용에 대해 아무 느낌 없다....

= 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 내려무나.

=> 시적화자는 부정적 현실에서 말라 죽어가는 모든 풀을 살려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다. 용이 흘러내려보내는 저 물을 이용해서 시들어 가는 풀들을 살려내겠다는 소망.... 여기까지 해석하면 된다....

===== 자 여기까지 또 정리해 봅시다. 시적화자의 대상은 연못이고 그 연못의 물을 이용해 세상에 시들어가는 모든 풀들을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정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고 끝입니다. 더 정리해야 합니까 ?....여기서 멈추고 빨리 다음으로 가세요....기본적인 해석만 하면 됩니다.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A] 외나모 뼈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흐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어
실긔티 플터이셔 뵈긔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를 넘어 내려가

=> 시적화자가 또 움직입니다. 대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 **썩은 외나무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 별거 없습니다. 대상을 찾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 찾으면 바로 정서 나오겠죠 ? 시적화자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 **(조물주가)천길 이나 되는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 뭔가 대상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대상은 절벽에 있나 봅니다.

=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어**

=> 대상이 절벽에 마디마디 걸려있는 모습...여러분도 알다시피 폭포입니다. 대상은 폭포입니다. 아마 정소표현 나올 겁니다. 잘 찾읍시다...

= **실처럼 풀어서 베처럼 걸어 놓았으니**

=> 대상인 폭포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서는 그다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 **산수도경에는 열두 굽이라 하였으나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되어 보인다.**

=> 관광지도에는 십이폭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12개 더 되어 보인다....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정서가 어느 정도 보이죠.... 와.....와.....와.....입니다.

===== 자 여러분....결국 지금까지 보면 ...금강산 자연 경관에 대해 정서를 노출하는 얘기죠.... 그 이상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제발 여러분의 읽기 방법을 바꾸면 1등급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학생들 10명이라면 10명이 바로 1 등급입니다. (조금 과장.... 솔직히 말할게요.... 죄송해요... 9명입니다. ⇨ ⇨ 정말입니다.) =====

이적선(李適仙)이 이제 이서 고택 의논하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낮단 말 못하려니
산중을 미양 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하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怨)하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 만일 이백이 지금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 중국 최고의 시인 (중국 최고로 대상에 대해 느낌을 잘 표현한 시인)과 폭포에 대해 논한다면

= 여산 폭포가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 중국 최고의 폭포인 여산폭포가 내가 보고 있는 12폭포보다 낫다는 말 절대 못할 것이다. 아 게임 끝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폭포가 어떻다?...최고 중에 최고다라고 예찬하고 있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렇게 해석만 되면 됩니다.

= 산중의 경치만 매양 보겠는가. 이제는 동해로 가자꾸나.

=> 시적화자 또 움직입니다. 또 다른 대상을 찾으러 가나 봅니다.

=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 그냥 가마타고 편하게 가나 봅니다.

= 눈부시게 반짝이는 시냇물과 여러 소리로 우짚는 산새는 나와 이별을 원망하는 듯 하고

=> 새들과 시냇물이 나와 이별을 원망하듯 운답니다. ㅋㅋㅋ

=> 새들은 왜 울어요?...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그냥 배가 고파서...

=> 시냇물은요?...자연의 현상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감정이입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새가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시적화자가 울고 싶은 거라고 했죠?...바로 눈 앞에 보이는 대상과 헤어지기 싫은 정서를 노출한 것이 시적화자이지...새는 아니예요.... 또 시냇물은 자연 현상인데...졸졸 시냇물 소리가 울음처럼 들렸다는 것은 바로 그 만큼 시적화자가 헤어지기 싫다는 정소 표현입니다.

===== 이렇게 관동별곡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상인 금강산 최고봉을 보고 와.....와..... 어떤 연못 보면서 시든 풀들을 다 살려내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 정신을 노출했고...가다 보니 12폭포 보면서.... 또 와.....와.....와.....하더니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니까 헤어지기 싫네..... 새가 울고 냇물이 우네....하면서 자기 감정과 정서 표출한 것...이게 다입니다. 더 있습니까 ?..... 이게 다입니다.

=====

===== 우리는 주입식으로 관동별곡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공
자 나오니까 유교적...어찌고 저찌고... 중국 고사도 또 정리하고, 거
기에 맞는 한자성어와 표현도 배워야 하고 또 필기하고...화룡소 연
못의 천년 노룽은 관리인 자신을 말하며 좋은 때를 만나는 것은 임
금의 은총이며 시들은 풀들은 모두 힘든 백성들이고..... 은하수, 실,
뵈, ... 이것들은 폭포를 상징하는 단어이며..... 이태백을 또 공부해
야 하고.... 금강산을 내려와 동해로 가는 정철의 모든 경로를 순서
대로 외우는세상에서 가장 비수능적 비수능적 비수능적 공부를
하면서 오늘 관동별곡 정말 행복하게 공부했다 하면서 내일 또 잊어
버리고 또 포스트 잇에 적어서 책상옆에 책옆에 끼워놓고..... 아 정
말 미치겠다....수능적 접근만 배우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것이
바로 서정문학인데..... =====

이번에도 수업시간에 쫓겨난 아이의 노트에 적힌 관동별곡입니다.
이런 공부법은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가)는 정철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받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내용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관찰사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와 연군지정(戀君之情)과 같은
위정자로서의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자연에 동화되어 신선이 되고픈 개인적인 자아의 욕망,
그리고 두 자아 사이의 갈등과 해소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풍경 묘사와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이거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내년엔 우리 또 만난다...!! 야호 !!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1-2줄 : 대상은 한라산 (한라산의 진면목).... 게임은 끝난 거 같습니다. (가)에서도 금강산 나오고 여기서 한라산 나오고....설마 (가)에서는 금강산 예찬을 했는데 여기서 한라산 욕하겠습니까 ?....진면목이라는 단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찬자세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센스있는 친구는 별로 긴장하지 않은 채 다음을 읽어 나갈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3 : 대상은 백록담...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서는 없습니다.

4 : 계속 묘사

5 : 신선이 사는 듯하다.... ㅋㅋㅋㅋ 게임 끝.... 한라산 최고다...백록담 최고다.....!!!!!!!

6 : 하늘이 준 성곽같다.... ㅋㅋㅋ 게임 끝.....!!! 백록담 예찬입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7 : 이동한다...

8 : 힘들지만 그래도 올라간다....

9 : 접근하기 힘든 산... 3명만 간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

[B] 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10 : 최고봉 묘사..... 대략 봐도 이거 욱하는 거니 ?.... 칭찬하는 거니 ?.....알지 ? 웅장하고 거대하고..... 등등...

11 : 천태만상의 모습인 섬들도 보고 있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12 : 성현들이 자연예찬한 말을 보니 그들이 이해가 간다.... 나도 지금 백록담과 세상을 보니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천하가 작게 보인다.... ㅋㅋㅋ 예찬이다.... 그냥 가자....

13 : 이런 자연보고 소동파는 (대파의 동생인가 ? ㅋㅋ 미안) 신선이 된다는 느낌이라잖아... 지금부터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지가 본 자연보고 신선이 된다는 서정을 노출시키잖아....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 그래서 이 시적화자는 그 얘기가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도 해당된다는 얘기라는 것이지....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14 : 힘들어 죽겠는데 당시 가요탑 10의 1위곡인 ‘낭읍축내’라는 노래를 부른다 ?...이거 뭐니 ? 태도잖니 ? 그렇지 ? 태도는 곧 정서라고 했잖니 ?... 피곤하고 죽겠는데 노래 부른다? 그거 미친놈 아니면 힘든거야...그러니 왜 노래를 부르겠니 ? 기분도 좋고...밥도 보이잖니.... 물론 밥을 자기가 하지 않아서 기쁘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다음부터 보이지 않게 된단다....!!!

=====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유한라산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방법과 비교해서 선생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까 ? 저는 수능이 생긴 93년도 이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학력고사도 잠깐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 수능이 생길 때 정말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이 이런 거구나.... 당시에는 수능 초기라서 곳곳에서 교수님들이 수능 출제원칙도 강의하셨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도 수능은 이렇게 출제된다고 참 많은 곳에서 밝혔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지금도 국어교육학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께 국어를 수능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수능식 접근과 내신 접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는 관동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고전 시가 작품을 마치 국어 한과목인 것처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이런 공부법으로는 1등급 못 만듭니다. 지문 1개 문제 3-4개인데....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라....? 정말 비경제적 공부법이죠.... 아마 주변에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열심히....아니면 우연히...수능식 접근법을 터득했을지 모릅니다. 어 !!! 나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하면서도 100점 맞는 친구들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모르게 체화된 경우죠..... 그렇지 않다면 3-5등급 이하라면 지금처럼 해보세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될지 모릅니다. ^&^

자.. 문제로 갑니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독자거나 전문가들 따로 나온다
고요.... 여러분은 옆에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OX하시면 됩니다.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노나라땅 좁은지는 우리 모른다... 구절입니다. 여러분 반어가 뭐죠 ?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이죠 ? 만약 우리는 모른다...라고 겉으로 말했으니까....속으로는 노나라에 대해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그렇죠 ?..... 위 글이 노나라 여행과 경륜이었습니까 ? 금강산 얘기였죠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어와 저 공자의 경지를 어찌 알 것인가 ? 구절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공자의 정신적 경지이고 예찬인데.... 물론 금강산 봉우리도 해당됩니다..... 도대체 정치는 왜 나오고 지위는 왜 나오며.... 글 어디에서 불만이라는 우회적 정서가 보였습니까 ?...빨리 지나가죠?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은 풍운을 얻어 삼일우~~~ 구절입니다. 좋은 때를 얻어 본인이 시든 풀을 살려낼 수 있는 풍부한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자연예찬 즉 연못에 대한 예찬이지 험난한 역경이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지요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은 시적화자가 움직이는 여정입니다. 거쳐 온 곳을 열거...0 /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 최소화 (너머 디어가 세 군데 나와야 하는데 한 군데만 나와서....) 0.../ 여정을 압축..0 /

= 답입니다. 모두 0입니다.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 ㉠ 가마타고 산을 오르는 모습..... / 높은 분이니까 가마타고 산을 넘을 수 있죠... 과장은 없습니다. 뚜껑없는 가마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러나 산에서도 가마를 타는 행위는 권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것도 OX문제입니다. 설명하는 사람 따로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 잘 끊어 읽으면서 OX만 해주면 됩니다.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한라산이 대상입니다. / 진면목도 봐야 하고 심사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지 않으려고...
= 0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객관적 사실이 바로 대상(한라산/백록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감이 바로 정서입니다. 맞죠? ... 0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3명.... 그냥 갑시다....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올라가는 과정은 복잡하게 나오더니 내려올 때는 가요탑 10의 1위곡 부르면서 내려왔죠 ?... 맞죠 ?.....0입니다.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내려올 때 시구 낭송은 맞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일행들 사이의 갈등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해소는 더더욱 말도 안되는 것이고..... 함축은 앞에 것이 성립이 안되는 데...무슨.... 답입니다.

= 5번 아저씨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또 갑시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굿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이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다 맞는다 했습니다. 이런 3점짜리 문제가 8개가 나오는데 5등급인 친구가 하루 아침에 2-3등급 되는 방법이 이런 3점짜리 다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 2점인데..... 늘 3점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 비교하라는 목적어가 보기와 A를, B를 입니다. 보기 처음 부분에 이들이 주어부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천천히 여러분은 OX를 해주면 됩니다.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자 보면 [A]와 <보기>는 이렇게 주어로 나오죠.... 여기서 일단 끊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맞으니깐요... 볼 필요도 없으니깐요.... 진짜로 [A]와 <보기>는...있으니깐요..... 그 나머지에서 OX를 판독하면 됩니다.

= 다음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이것이 OX인지 판독해 주세요...

= [A]는 폭포 묘사부분이고, 시간의 변화 없습니다. ...<보기>는 ...이제 해석해 봅시다.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긱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블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 시적 자아가 망양정을 오릅니다. 별거 없습니다.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 멀리 쳐다봅니다. 정서 없습니다.

가뜩이나 성난 고래(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파도가 조금 무섭습니다. (정서노출)

물을 블거니 폼거니 하면서 어지럽게 구는 것인가?
=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 특별한 정서는 없습니다.

은산을 꺾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려 내리는 듯,
= 파도를 보니까 은산을 꺾어내어 흩뿌린 듯한 모습....아름답다는 정서가 노출된거죠...

드높은 하늘에 백설(파도의 물거품)은 무슨 일인가
= 또 그 옆에 파도 옆에 물거품도 보기 좋다...라는 정서 표출입니다.
===== 자 여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되는 자연없죠 ?.... 갑시다....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A]는이 주어입니다. 폭포를 천문현상 은하수로 비유.... 맞습니다.
= <보기>는이 주어입니다. 자연물인 파도와 물보라를 은산, 고래, 백서로 비유했습니다.
= 틀렸죠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둘 다 주어입니다. 내용 생략...지나갑니다.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B]는 주어, 자연물을 의인화.... 한라산/백록담을 의인화.... 0입니다.

= <보기>는 주어, 파도와 물보라의 움직임.... 비유.... 0입니다.

= 답입니다.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 [A]와 [B]가 주어.... 관조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정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대상들에 대해 주관적인 표현을 쓴 것은 정서가 노출되거나 우회적으로 숨기기 위한 표현이므로 관조가 틀렸고, 반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 하나 알아두세요.... 시공부하다가 자신을 반성한다는 말 나오면 무조건 그 시의 대상은 뭐다?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야 반성과 성찰이 나오는 것입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3점짜리.... 감상앞에 목적어가 주어부로 나갑니다. 명심하세요....

= 주어부..... / 여기서 OX판단해주세요....

= 주어부 (OX판단)..... / 여기는 <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OX판단해 주시면 끝 !!!!

=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3점 문제는 <<<지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라>>>...그랬죠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 (가)가 주어부입니다. ~~~ 감상한 부분은 까지가 ... 주어부입니다. 여기서 OX합시다.
- = 대상 화룡소 보고 자기 느낌 얘기하죠 ? 오케이 O입니다.
- = 이제 나머지는 보기 내용 나옵니다. 잘 보세요....
- = 보기의 내용 와유를 대입하면 되겠죠 ? 그건 알아서....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 (가)의 화자는 /까지가 주어부입니다. 말하나 마나 화자니까 O입니다.
- =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내용보니까 O입니다.
- =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한다..... //// 어디에 여산이 나오니까 ? 실제로 간 곳은 금강산입니다. 실제로 여산 갔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 = 답입니다.
- =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 오늘은 여러분... 수능 B형의 고전문학을 해봤습니다. 제 수업은 늘 이렇습니다. 절대로 외우거나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린 후배강사들은 제 수업을 듣고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서로 학생과 소통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서정문학 개념 하나로 어떤 시라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 것이 없어서 그렇지 다 드릴테니..... 1등급 되어 효도합시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글 남겨주시거나 쪽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